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5.21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06.80원(+1.00원)

KOSPI

7,208.95(-62.71, -0.86%)

KOSDAQ

1,056.07(-28.29, -2.61%)

국고채 10년 금리

4.198(-0.01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중국 전력망/전동화 산업	금속과 전기 강국의 저력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백승혜]
신흥국 전략	[2026년 하반기 인도·아세안 주식시장 전망] 화면 조정 중 [김근아]

기업분석

LIG아큐버	미국 5G SA 시대 개막, 삼성/애플 수혜 기대[김홍식]
삼성전기	점점 더 강해지는 확신[김민경]

산업분석

이차전지	4월 ESS Battery : 글로벌 Grid 성장 지속 [김현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OCI홀딩스, 한국금융지주, CJ제일제당, 팬오션, 심텍

하나증권

2026년 5월 21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중국 전력망/전동화 산업

금속과 전기 강국의 저력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China

Top Picks 및 관심종목

사원전기(002028.SZ)
TP 248.07CNY I CP 250.30CNY

화밍장비(002270.SZ)
TP 35.94CNY I CP 24.16CNY

CATL(300750.CH)
TP 561.29.00CNY I CP 414.75CNY

선도지능(300450.CH)
TP 63.04 CNY I CP 51.66CNY

*CP 2026년 5월 20일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전동화는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지배력, 그리고 이들의 수출 급증은 2020년대 들어 가장 놀라운 글로벌 경제 흐름 중 하나다. 중국은 석탄 화력 중심의 대규모 전력 시스템과 제조 생태계를 통해 에너지 집약적인 핵심 광물 정제/가공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그 결과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부품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앞으로 원유 수입 의존을 줄이려는 국가들에 전력 생산부터 전기화된 운송까지 모든 전동화 솔루션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전동화에 집중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으로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석유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 연료 수요는 2020년 이후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게 향상되며 최근 2년 연속 감소했고, EV 침투율 확대에 따른 중국 휘발유 소비 감소 효과는 2020년/24년 일평균 10만/43만 배럴, 연간 소비량의 3%에서 12%로 확대되었다. 중국 EV 침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승용차 보유대수 중 EV 비중은 2025년 10% 초반에서 2035년 3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 경우 2035년 중국 휘발유 소비 절감 효과는 일평균 약 150만 배럴로 2024년 중국 휘발유 소비의 4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강국' 지위 굳히기 위한 전력망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

중국에서 석탄은 여전히 기저 전원의 역할을 하지만, 2024년부터 중국은 추가 전력 공급에 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2024년 중국의 태양광/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미국의 4배 규모, 2025년 발전량은 2,500TWh로 미국 산업용과 주거용 전력 소비량 수준에 달했다. 다만, 중국 재생에너지 설치가 전력망 확장 속도를 앞지르며 중국 북서부의 대규모 전력이 동부로 전송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출력제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지리적 불일치 이슈 해소를 위해 중국은 초고압 송전망(UHV) 건설을 확대해왔으며, 현재 UHV가 전송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부분 석탄/수력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풍력/태양광을 위해 UHV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가 전력망 강화를 위해 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30년) 동안 직전 5개년(2.85조) 대비 40% 증가한 4조위안 투자를 계획 중이다.

2026년 하반기 중국 변압기/ESS/이차전지 장비 및 소재 기업 투자 추천

중국의 전력망 및 전동화 테마와 관련해 2026년 하반기 관점에서 변압기, ESS, 이차전지 장비 또는 소재 업종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인 상황이다. 변압기 산업에서는 중국과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사원전기(002028.CH), 화밍장비(002270.CH)를 추천하며, 전동화 테마 내에서는 글로벌 1위 ESS 배터리 제조사인 CATL A주(300750.CH), ESS 수요 증가, 차세대 전고체 기술 개발 가속화로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1위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업체인 선도지능(0470.HK/300450.CH)을 추천한다.

2026년 5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2026년 하반기 인도·아세안 주식시장 전망] 화면 조정 중

인도·베트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인도] 중장기 긍정적 시각은 유지. 다만, 하반기 유가 및 환율 안정이 선행될 필요

인도 증시는 2026년 1월 신고가 경신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음. 조정의 핵심 배경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부각된 고유가 부담. 원유 수입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는 인도는 유가 상승 시 상품수지 악화,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에 동시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여기에 대외수지 악화 우려가 루피화 약세로 전이되면서 외국인 자금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인도 증시의 추세적 반등은 제한되고 있음. 외에도 대내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우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등은 현재 인도 경제 성장과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추가 변수 상존

다만, 아직까지 인도 경제의 내수·투자 중심 성장 축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판단. 미국-이란 전쟁 이전까지 인도 경제는 견조한 내수소비와 정부 주도의 투자 모멘텀을 바탕으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음. 2025년 하반기 이후 감세, 금리 인하, GST 개편 등 정책 효과가 누적되면서 소비 지표에서도 회복 신호가 점차 확인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음

최근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둔화 우려는 커지고 있으나, 4월 자동차 판매량과 GST 징수액 호조를 감안하면 소비 기반이 급격히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유가와 환율 불안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기존 정책 효과가 재차 부각되며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유효함. 또한 2026년에는 정책 초점이 단기 소비 부양에서 고성장 기조 유지와 성장 기반 강화로 이동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도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전망

중장기 관점에서 인도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유지하나, 하반기에는 유가와 환율 안정이 선행될 필요. NIFTY50 지수 예상 밴드 22,626~25,858pt로 제시하며,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될 시 상단은 26,505pt까지 열어둘 수 있음

[베트남] 정책 모멘텀과 FTSE 승격, 이익 개선 흐름을 감안, 비중확대 의견 제시

베트남 역시 지정학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견조한 수출·FDI 유입을 바탕으로 고유가 충격이 대외수지 악화와 통화 약세로 즉각 전이되는 강도는 인도 대비 제한적. 이에 베트남 증시는 일시적 조정 이후 상승세 유지되는 중

베트남 증시 강세의 배경에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정책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음. 베트남은 2025년 GDP 성장률 8%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2026년 성장률 목표가 10%로 상향 제시되면서 고성장 지속 기대가 증시에 반영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민간 부문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조업 기반 확대와 FDI 유입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며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음. 또한, 2026년은 교통·물류·전력 등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 하방 압력 완충 효과도 기대됨

수급 측면에서는 FTSE 러셀의 베트남 증시 승격 확정이 하반기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베트남은 Frontier Market에서 Secondary Emerging Market으로의 승격이 확정됐으며, 2026년 9월부터 FTSE 글로벌 지수 편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 상기 요인들을 감안해 하반기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 VN 지수 예상 밴드는 1,796~2,170pt로 제시

2026년 05월 2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IG아큐버 (073490)

미국 5G SA 시대 개막, 삼성/애플 수혜 기대

BUY (유지)

목표주가(12M)	80,000원
현재주가(5.20)	40,4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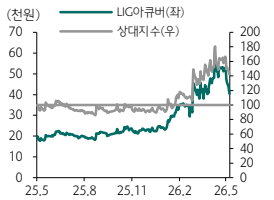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56.07
52주 최고/최저(원)	57,400/17,950
시가총액(십억원)	307.6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7,603.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78.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3
외국인지분율(%)	4.64
주요주주 지분율(%)	
엘아이지 외 4 인	30.1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29.9	289.0
영업이익(십억원)	19.7	33.9
순이익(십억원)	16.9	28.9
EPS(원)	2,227	3,801
BPS(원)	24,086	28,10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89.7	186.1	231.3	311.7
영업이익	2.4	(1.1)	15.5	35.7
세전이익	5.9	(1.4)	18.1	37.9
순이익	2.5	(1.2)	14.5	32.2
EPS	333	(158)	1,910	4,237
증감율	(76.71)	적전	흑전	121.83
PER	62.16	(141.77)	22.25	10.03
PBR	0.93	1.02	1.76	1.50
EV/EBITDA	12.78	29.96	12.62	5.82
ROE	1.51	(0.71)	8.28	16.18
BPS	22,269	21,991	24,120	28,256
DPS	120	100	100	1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투자의견/12개월 목표가 8만원 유지, 주가 크게 못 오른 게 기회 요인

LIG아큐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상황이고, 2) 2026년 연간, 2027년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뚜렷한 실적 회복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며, 3) 미국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5G SA 시대로 돌입할 것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익성이 우수한 시험장비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4) 해킹 이슈로 주춤했던 스몰셀 매출이 일본/국내를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며, 5) 국내 대표 5G SA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PBR/PSR을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5G SA 서비스 본격화 시 시험장비/스몰셀 매출 증가할 전망

최근 투자가들의 미국 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26~2028년 동안 800MHz에 달하는 5G/6G 대규모 주파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AT&T의 경우 이미 2030년까지 370조원에 달하는 CAPEX 집행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미국의 5G SA로의 진화가 기지국 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사실상 LIG아큐버 역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초기엔 시험장비, 중/장기적으론 스몰셀 장비 메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신규 주파수 할당 및 5G 기지국 증가 시 삼성/애플에서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네트워크 성능을 계측하는 시험장비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주파수 활용 폭 증가 시 스몰셀 수요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2026년 하반기 미국 통신장비 시장 개화는 LIG아큐버에 큰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실적 개선될 저평가 장비주, 주가 탄력 받으면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2026년 들어 LIG아큐버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지만 2021년 이후 하락 폭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유의미한 실적 변화가 없었고 수급이 따르지 못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매수세 유입 시 역으로 LIG아큐버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5G 도입 초기 LIG아큐버가 나름 대장주 역할을 수행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선 올해 LIG아큐버의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실적 역시 2026년부터 개선되어 2027년 이후 본격 이익 성장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1분기 영업적자가 3억원으로 전년동기비 크게 감소한 데다가 시험장비/스몰셀/방산 매출의 계절성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익 성장 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6년 하반기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시험장비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갖게 한다.

2026년 5월 21일 | 기업분석_Update

삼성전기 (009150)

점점 더 강해지는 확신

BUY (유지)

목표주가(12M) 1,700,000원(상향)
현재주가(5.20) 1,06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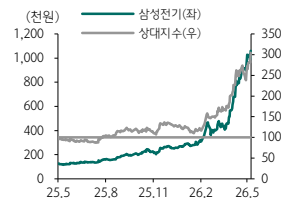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208.95
52주 최고/최저(원)	1,061,000/117,300
시가총액(십억원)	79,250.0
시가총액비중(%)	1.34
발행주식수(천주)	74,693.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4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42.1
외국인지분율(%)	38.28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4 인	23.78
국민연금공단	10.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355.9	15,477.6
영업이익(십억원)	1,571.1	2,356.7
순이익(십억원)	1,303.1	1,919.7
EPS(원)	16,315	24,087
BPS(원)	140,947	163,40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294.1	11,314.5	13,427.4	16,021.1
영업이익	735.0	913.3	1,649.7	3,066.3
세전이익	797.3	895.8	1,746.6	3,113.5
순이익	679.1	706.1	1,377.6	2,465.9
EPS	8,752	9,099	17,752	31,776
증감율	60.59	3.96	95.10	79.00
PER	14.15	28.03	59.77	33.39
PBR	1.08	2.04	7.56	6.25
EV/EBITDA	5.87	10.44	31.32	20.15
ROE	8.16	7.70	13.58	20.75
BPS	115,152	124,850	140,312	169,799
DPS	1,800	2,350	2,350	2,35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목표주가 170만원으로 상향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주가를 1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7년 예상 EPS 33,014원에 Ibiden의 27년 예상 멀티플을 적용했다. 데이터센터발 FCBGA 업황 호조로 가격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가운데 신호 전달 경로를 단축하기 위한 캐패시터 내장 FCBG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MLCC, 실리콘 캐패시터 등 수동 소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 기판 업체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MLCC 또한 AI 서버 랙의 전력 밀도 상승으로 서버 랙 당 MLCC 탑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7년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은 글로벌 MLCC 생산능력을 대폭 잠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CBGA와 MLCC 모두 27년까지 추가적인 생산능력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 추정은 지속 상향조정되고 있어 우호적 영업환경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실리콘 캐패시터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

삼성전기는 금일 약 1.6조원 규모의 글로벌 대형기업향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공시했다. 27~28년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세라믹 대신 실리콘 웨이퍼로 제작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작게 만들 수 있어 반도체 패키지 면적과 두께를 얇게 설계할 수 있다. 최근 VPD(Vertical Power Delivery) 도입 등 반도체와 패키지 기판 간 신호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니즈가 강해지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사의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폼팩터 사이즈 특성상 초고용량 대응은 제한적으로 MLCC를 대체하기 보다는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7년 연간 영업이익 3조원 전망

27년 매출 16조 211억원(YoY +19%), 영업이익 3조 663억원(YoY +86%, OPM 19%)을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28% 상향 조정했는데 컴포넌트와 패키지솔루션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35%, 12% 상향한 것이 주 요인이다. 컴포넌트솔루션의 경우 27년 데이터센터 내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고전압 고용량 제품과 저전압 고용량 제품 수요가 동반 성장하며 믹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위권 업체들 또한 AI 서버용 MLCC 공급에 집중하며 업계 전반의 생산능력 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우호적 영업환경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은 1분기부터 이루어진 FCBGA 판가인상 기조가 연중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수율 향상 및 생산 효율화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장치산업 특성상 27년까지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 상향조정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 상향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4월 ESS Battery : 글로벌 Grid 성장 지속

2026년 4월 ESS Data in detail | 2026.5.21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지역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지역	Grid		BTM		Total			Grid		BTM		Total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4월	글로벌	12.8	27.3	4.9	Flat	17.7	18.3	누적 (1-4월)	66.4	39.6	21.7	9.5	88.1	30.8
	미국	0.4	-86.1	0.7	Flat	1.1	-67.3		9.7	14.2	2.7	-1.0	12.4	10.5
	유럽	0.9	104.4	0.7	Flat	1.6	39.2		7.4	111.5	2.8	8.4	10.2	67.7
	중국	7.2	86.1	2.2	Flat	9.4	55.4		31.8	13.1	9.3	3.9	41.0	10.9
	기타	4.4	39.3	1.3	Flat	5.7	27.6		17.5	134.3	6.9	24.3	24.5	87.4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주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고객 측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자원. 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시설 내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이 해당. 발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FTM(Front The Meter)과 대비되는 개념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 유형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연계 유형	설치량(GWh)	YoY(%)		설치량(GWh)	YoY(%)
4월	Grid	8.5	66.5	누적 (1-4월)	48.0	73.2
	Wind+Solar	0.0	N/A		1.2	4.6
	Wind	0.5	-53.0		1.9	-63.1
	Solar	3.8	3.4		13.7	1.0
	기타	0.0	N/A		1.4	N/A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신규 설치 비중

케미스트리

- 4월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비중은 LFP 91.2%(MoM -2.9%p), NCM 3.1%(MoM +0.4%p), Flow Battery 2.4%(MoM +1.8%p), Sodium based 0.6%(MoM +0.1%p), 기타 2.7%(MoM +0.6%p)

시사점 및 의견: 유럽, ESS 공급망 탈중국 정책 강화

- 4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Grid+BTM)은 17.7GWh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2026년 누적(1-4월) 기준으로는 88.1GWh의 신규 ESS가 설치되며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EK. 중남미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가동과 유럽의 견조한 수요 증가 등이 시장 성장 견인했다.
- 신규 설치량의 72%를 차지하는 전력망(Grid) ESS의 경우, 4월에 12.8GWh(YoY +27%) 규모의 ESS가 새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지역별로 보면, 4월 신규 설치량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4월 Grid형 ESS 신규 설치량이 0.4GWh(YoY -86%)로 감소했으나, 이는 유틸리티급 프로젝트의 상업운전(COD) 시점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누적 기준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설치량이 증가했고, 특히 유럽의 증가폭이 컸다(+112%).
- 설치량 중 28%를 차지하는 BTM(Behind The Meter) 시장에서는 4월에 글로벌 4.9GWh(YoY Flat)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모든 지역(미국, 유럽, 중국, 기타)에서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Flat 수준이었다.
-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유형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전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을 하는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의 경우 4월 8.5GWh가 신규 설치되며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4월 태양광 연계 ESS는 3.8GWh로 +3% 증가했으나, 풍력 연계 ESS 설치량은 0.5GWh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며 전체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하이브리드(풍력+태양광) 합산) ESS 합산 설치량은 4월 4.3GWh(YoY -13%) 기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입찰·인허가 일정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6년 4월의 YoY 감소는 수요 둔화보다는 프로젝트 가동 시점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한편, 글로벌 ESS 시장은 설치량 성장과 함께 공급망 구조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2026년 5월부터 중국 주요 업체를 포함한 고위험 인버터 및 PCS(Power Conversion System) 공급업체를 EU 자금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및 ESS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배터리 셀 중심이던 ESS 공급망 규제가 전력전자 부품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럽 내 ESS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ESS 시스템 업체들의 유럽 시장 침투가 제한될 경우, 비중국 공급망 기반 ESS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럽 ESS 시장 내 한국 셀 메이커들에 반사 수혜 예상된다(관련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5/18	270,500	276,000	2.0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5/18	1,819,000	1,745,000	-4.07%	• 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하나금융지주 (086790.KS)	5/18	119,000	115,600	-2.86%	• CET 1 크게 하락했지만 2분기 회복 가능. 큰폭의 NIM 상승세 2분기 지속 전망 • 비은행 이익 턴어라운드 시작되었고 2027년 가속화 예상
한국금융지주 (071050.KS)	5/18	258,000	232,500	-9.88%	• 1Q26 Review 매출액 11.4조원(YoY +130.3%), 영업이익 9,599억원(YoY +85.0%) 기록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5/18	291,000	277,500	-4.64%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CJ제일제당 (097950.KS)	5/18	228,500	214,000	-6.35%	• 전쟁 기인해 시황이 급변하면서 바이오 부문 손익, 예상대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중국 돈가 및 소비 회복에 따른 라이신 판매 증가 가능성 긍정적
팬오션 (028670.KS)	5/18	6,030	5,780	-4.15%	• 비벌크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며 에너지 선사로 리레이팅 기대 • 전쟁 이후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헤지 효과 발생
심텍 (222800.KQ)	5/18	100,300	103,600	3.29%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72%	-0.91%p	+75.59%	+16.7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팬오션 (028670.KS)	5/11	5,980	5,780	-3.34%	• 비벌크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며 에너지 선사로 리레이팅 기대 • 전쟁 이후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헤지 효과 발생
DN오토모티브 (007340.KS)	5/4	48,050	44,550	-7.28%	• 핵심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재상장 가능성 낮아질 경우 지분 희석·수요 분산 우려 완화 • 자기주식 11.5%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확대 시 밸류업 모멘텀 작용 가능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77,500	3.74%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4,890	-9.87%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745,000	69.91%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91,900	0.00%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76,000	65.0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1,300	10.35%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17,000	25.41%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760,000	158.94%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71%	-17.50%p	+43.12%	-15.7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17	5.18	5.19	5.20	5.21	5.22	5.23
	▪중국 4월 소매판매 (0.2%, 이전치 1.7%) ▪중국 4월 광공업생산 (4.1%, 이전치 5.7%) ▪중국 4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농촌제외) (-1.6%, 이전치 1.7%)	▪일본 1분기 GDP SA (2.1%, 이전치 1.3%)	▪유로존 4월 CPI (3.0%, 이전치 3.0%)	▪한국 5월 소비자심리 (E --, 이전치 99.2) ▪일본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2) ▪유로존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7.6) ▪미국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	▪한국 5월 소비자심리 (E --, 이전치 99.2) ▪일본 4월 CPI (E 1.6%, 이전치 1.5%) ▪미국 5월 소비자신뢰 (E --, 이전치 48)	
5.24	5.25	5.26	5.27	5.28	5.29	5.30
		▪미국 5월 CB 소비자기대 (E --, 이전치 92.8)	▪일본 4월 PPI 서비스 (E --, 이전치 3.1%) ▪한국 4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	▪한국 금리 결정 (E --, 이전치 2.5%) ▪유로존 5월 소비자기대 F (E --, 이전치 --) ▪미국 4월 PCE (E 3.9%, 이전치 3.5%) ▪미국 4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2%) ▪미국 1분기 GDP (E --, 이전치 2.0%)	▪일본 4월 실업률 (E --, 이전치 2.7%) ▪독일 5월 CPI P (E 1.6%, 이전치 2.9%)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